



숲,
공간이
되다





숲, 공간이 되다

사람들은 이제 다시 삶 속에 숲을 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삶의 터전에서 인공적인 것을 걷어내고 그 빈자리를 숲에서 얻은 나무로 채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몸과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담아내는 숲. 포근한 자연의 품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번 자연을 담아냅니다.

Cover Story

사람들은 이제 다시 삶 속에 숲을 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삶의 타전에서 인공적인 것을 걷어내고 그 빈자리를 숲에서 얻은 나무로 채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몸과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담아내는 숲. 포근한 자연의 품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번 자연을 담아냅니다.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 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 긴행물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agazine 숲>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21년 11월 22일 발행 산림청
기획 산림청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T. 042-481-8843 / 042-481-4074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스튜디오 KENN

SNS에서 산림청 소식을 만나보세요.

- youtube.com/forestgokr
- instagram.com/forest_korea
- facebook.com/forestkorea
- twitter.com/forest_news

Contents

www.forest.go.kr

이번 호 <Magazine 숲>을
휴대 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06 숲이 전하는 메세지
당신의 인생을 담는 공간, 숲

08 숲에 드리우다
괜찮아, 올해도 수고했어
- 제주 삼달오름

14 숲에 머물다
산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 엄홍길

18 숲에 번지다
이토록 따뜻하고 무해한 공간

22 요즘 숲 트렌드
추운 겨울 자연을 즐기는 방법
- 전국 목재문화체험장

24 언택트 숲 여행
자연을 간직한 비밀정원
- 죽도 상화원

30 임업 in 라이프
자연에 시간과 정성을 더하다
- 지영홍 도마 장인

34 숲튜버 다이어리
레고로 만드는 위트있는 일상
- 클릭커(Clicker)

38 오늘의 한 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건강한 임산물
- 고사리와 밤

42 숲 사용 안내서
자연을 그대로 담은 크리스마스
- 생목 트리 만들기

44 숲에 깃든 이야기
나무를 닮는다는 것은
-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46 함께하는 산림
내 손안의 작은 숲을 꿈꾸다
- 목재문화진흥회

50 산림청 소식
- 산림청 주요 이슈 및 소식

A space for your life, a forest

당신의 인생을 담는 공간, 숲

인류역사의대부분을자연에서보냈던탓일까요, 인간은본능적으로자연에 끌립니다. 의지와 관계없이 자연의 소리와 감촉, 향기를 좋아하죠. 인간은 실제로 숲의 녹색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될 때 나타나는 뇌파인 알파파가 증가했고, 숲의 소리를 들을 때 몸이 편안함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산업화로 그간 피로감이 쌓였던 인간은 이제 다시 삶 속에 숲을 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삶의 터전에서 인공적인 것을 걷어내고 그 빈자리를 숲에서 얻은 나무로 채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목조 건축물은 우리마음의안식처만 되는 것이아닙니다. 콘크리트보다단단한강도를유지할 뿐 아니라탄소를머금고 있어 그 자체로 이롭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숲은 우리의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숲에서 지혜와깨달음을 얻었다 하고, 배움과 치유의 공간이라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담아내는 숲. 포근한자연의 품으로, 그렇게 우리의삶 속에도 한 번 자연을 담아냅니다.





괜찮아, 올해도 수고했어

제주 삼달오름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며 일교차가 제법 크다. 겉옷은 두꺼워지고 슬슬 실내에 머무는 시간도 늘어났다. 추위에 바짝 말라가는 나무처럼 추위에 몸과 마음이 굳어갈 즈음 문득 조바심이 난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진다. 바로 그곳, 당신만을 위한 자연 힐링 공간 제주 삼달오름이면 괜찮겠다.

글 매거진숲 편집실 사진 삼달오름 제공



한 해가 가기 전에는

한 시인은 말했다. 사랑하기에는 조금 가난한 것이 낫고, 사랑하기에는 오늘이다 가기 전이 좋다고. 그렇다면 한 해의 끝이 얼마남지 않은 지금은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싶다. 그간 숨가쁘게 살아온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건 마음을 추스를 시간일 테니까. 하루하루의 일상은 더없이 소중한지만 반복되는 생활은 조금 피로하고, 온갖 책임을 요구하는 일과 역할 사이에 끼어 살아오느라 나란 존재는 열어진 기분마저 든다. 여행은 늘 그렇게 시작된다. 조금 허기지고 아련 마음으로, 닳고 닳아 무감각해진 몸으로. 들끓는 도심의 소음과 일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기에는 아무래도 숲이 제격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며, 느리고 고요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싶어질 때는 혼자 좋고, 만약 당신이 도심을 떠나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다고 한다면 바로 이곳 제주 삼달오름이 괜찮겠다.

제주에는 수많은 오름이 존재한다. 오름은 산봉우리 또는 봉우리를 뜻하는 제주도의 방언인데, 제주에만 자그마치 삼백여 개가 넘는 오름이 자리 잡고 있단다. 한라산의 산록에서부터 해안까지, 정수리처럼 동그랗게 패이고 솟은 지형을 본다면 그곳이 바로 오름이다. 팔을 길게 뻗어 품는 자세로 제주의 마디마디를 끌어안고 있다. 그래선지 '오름'하고 발음하면 괜히 기분 좋은 제주 바람이 입안으로 부는 듯하다. 여감이 따스하고 안온해 그런지도 모르겠다. 숲에서 한가롭게 부는 바람 한쪽을 떼어 입에 담은 기분이라랄까. 삼달오름. 이름만 얼핏 듣는다면, 제주의 수많은 오름 중 한 곳인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다. 흡사 오름을 닮았지만 엄연히 오름은 아닌 독채 숙박 공간이다. 제주 동쪽 끝 몸집이 비슷비슷한 슬레이트 지붕 가구 몇 채 틈으로 오름 모습을 한 집 두 채가 어깨를 맞댄 채 다 소곳이 서 있다. 이곳에 숙박 공간을 짓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제주 도심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01 오름은 산봉우리를 뜻하는 제주 방언이다. 제주에만 삼백여 개가 넘는 오름이 자리 잡고 있다.

02 중정을 둘러싼 삼달오름의 목구조 뼈대와 원형을 이루는 서까래가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다.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고향으로 내려온 차였는데, 문득 독채 펜션을 하나 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매일매일 반가운 손님을 맞는 설레는 기분으로 살아도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정성껏 텃밭을 가꾸고, 투숙객과의 추억을 쌓는 모든 과정이 썩 괜찮아 보였다. 삼달오름은 그렇게 탄생했다.

제주의 오름을 닮은 프라이빗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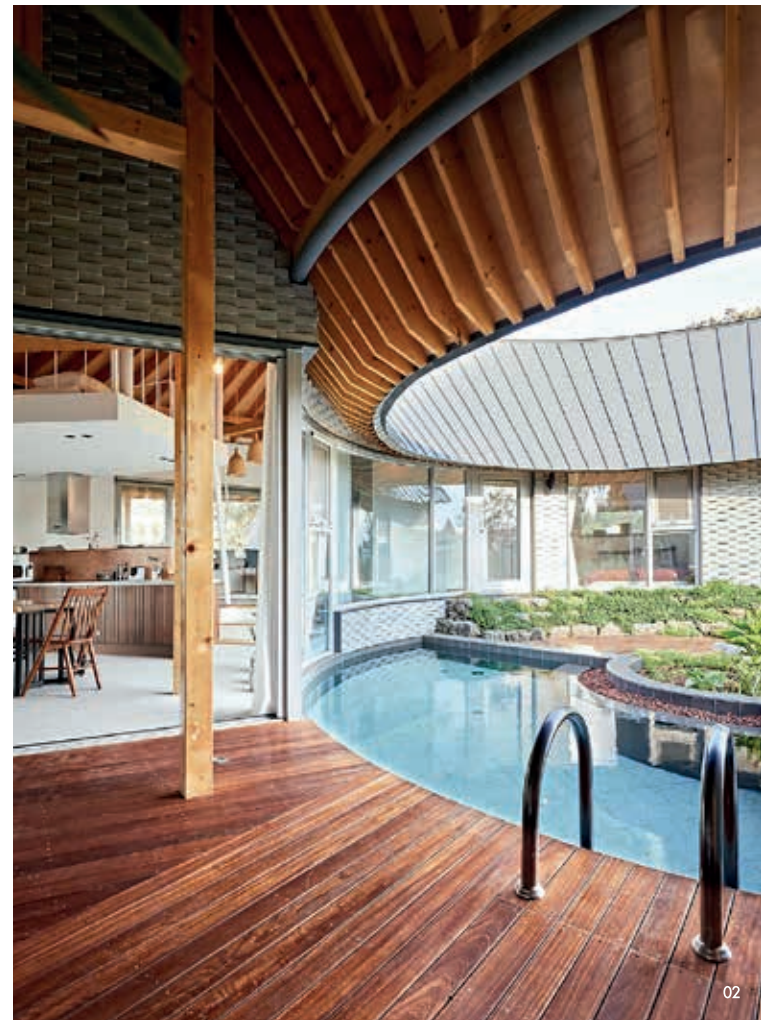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삼달오름은 제주의 오름을 모티브로 설계되었다. 제주가 가진 자연의 품, 흡사 숲의 중정 같은 곳. 적당한 유대감이 필요한 요즘, 사람간의 부탁과 호의조차 전부 기술이고 거래인 시대에, 그런 제주의 오름을 닮은 공간이라면 더없이 안온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듯했다.

한가한 삼달리의 고즈넉한 풍경 위로 동그런 형태를 띤 건물 외관이 보인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진 두 채의 건물은 오름을 닮아서인지 제주도 돌담과도 썩 잘 어울린다. 저 근방에선 바다가 끊임없이 맴돌고 그 덕에 소란스러운 사람 말소리보다 제멋대로 부는 바람에 뒤척이는 파도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온다. 인적이 드문 동네지만 옹기종기 모인 몇 가구가 소담스럽게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 모두 삼달2리를 이루는 풍경이다.

삼달오름과 바닷가의 거리는 약 2분 남짓이다. 조금만 밖을 나가면 바다와 맞닿는다. 지대가 조금만 높았다면 실내에서도 바다를 감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들끓는 도심의 소음과 일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기에는 아무래도 숲이 제격이다. 만약 당신이 도심을 떠나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다고 한다면 바로 이곳 제주 삼달오름이 괜찮겠다.





복층을 고집하진 않았다. 적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공간 규모가 작은 편이 여러모로 낫기 때문이다. 삼달오름이 품은 중정을 거쳐 내부로 들어서면, 건물 전체를 구성하는 목구조의 뼈대와 원형을 이루는 서까래가 훤히 비춘다. 이 같은 정형적이지 않은 오름의 구조적 특성을 연출하기 위하여 접합 부분의 섬세함을 살리는 데에 공을 들였다고. 그래서인지 공간 내부에 입체감이 한층 입체적이다. 더구나 목재 특유의 질감이 더해져 공간이 더욱 부드럽고 감성적이기까지 하다.

무용의 쓸모

용도와 목적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무용한 것이 더 큰 쓸모로 다가올 때가 있는 법이다. 공간도 비슷하다. 공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무용한 공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텅 비어 있는 공간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품은 공간에 가깝다. 이를테면 삼달오름의 중심인 중정이자 마당은 아이들의 놀이터로도 쓰이지만 야외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다. 원형 내부를 연결하는 개방된 각각의 공간들도 마찬가지다. 직관적이지만 단순하지 않은 공간

설계로 공간의 용도를 한층 다층적으로 만들어 낸다. 분명한 목적을 두지 않고 적당히 비워두는 것. 우리가 삶에 필요한 자세이기도 하다.

사소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의 작은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모든 게 정해진 계획에 따라 여러 이해관계와 맞물려 살아가는 도심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시간을 쏟는 것. 이곳 삼달오름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독채라는 점이다. 공간은 물리적인 안식처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지지대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개방감과 더불어 개인의 사적 영역이 함께 충족되는 삼달오름은 투숙객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집은 너무 익숙하고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질 때 삼달오름은 당신의 또 다른 집이 될 수 있다.

한 해가 저물어간다. 평생을 1인칭의 시점으로 사는 우리는, 종종 자신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나조차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무감각한 몸과 마음으로 사는 때가. 그러니 올 한해 수고했노라고, 다 괜찮다고 자신을 다독여주도록 하자. 물론, 그 위안의 장소가 제주 삼달오름이라면 더욱 좋겠다. 🌿

03 내부는 목재 특유의 질감이 더해져 부드럽고 감성적인 공간으로 연출되었다.

04 통창으로 내다보이는 중정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작업 공간이 되기도 한다.

오르면 비로소 보이는 풍경들

제주도 대표 오름 명소

제주에는 수많은 오름이 존재한다. 제주도에 있는 오름의 수만 해도 대략 삼백여 곳. 각 오름의 기원도 형태도 명칭도 참 다양하다. 화산섬인 제주도가 빚어낸 명물인 만큼 오름 투어를 목적으로 여행 코스를 구성하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그래서 준비했다. 제주도의 인기 오름 다섯 곳. 제주도에 가면 꼭 들려야 할 오름을 지금 알아보자.

사진 제주관광공사 제공

새별오름



오름을 오르는 입구에서 약 3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가축을 방목하였고 겨울이면 들불을 놓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새별오름에선 매년 초봄이면 제주도 대표 축제인 들불 축제가 열린다.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59

용눈이오름



위에서 보면 흡사 화구의 모습이 용의 눈처럼 보인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정상에 원형분화구 3개가 연이어 있고 그 안에는 동서쪽으로 조금 트인 타원형의 분화구가 있다. 제주도 동부권인 구좌읍과 성산읍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특히 일출과 일몰 명소로 꼽힌다.

📍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산28

따라비오름



3개의 굽부리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아름다운 능선과 더불어 가을 역새의 명소이기도 해 오름의 여왕으로도 불린다.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62

금오름



서부 중산간 지역의 대표적인 오름 중의 한 곳이다. 경사도 완만하고 바깥의 둘레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제주 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다.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1-1

엄홍길 Um Hong Gil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6좌를 등정한 산악인. 2008년 엄홍길 휴먼재단을 설립해 네팔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 및 의료 지원 사업을 비롯해 국내외 청소년 교육 사업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산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엄홍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매 순간 산에게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살아서 산을 내려가게 해준다면 남은 인생은 산에서 먼저 간 사람들과 남은 이들을 위해 살겠노라고.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엄홍길은 지금, 온 힘을 다해 그 약속을 지키는 중이다.

글 매거진숲 편집실 사진 김병구

진심을 다해 재단에 힘쓰다

함박웃음과 희끗희끗한 머리의 따뜻한 대장님을 기대했다. 인사를 나누고 재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아, 이 눈빛이지. 그렇지. 이 눈빛으로 히말라야 8,000m 16좌를 올라갈 수 있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야생 호랑이를 봤다면 이런 눈빛이겠다 싶었다. 인상은 편안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와 함께 히말라야를 올랐던 소설가 박범신이 "해발 5,000m 이상에서 엄홍길 대장의 눈빛은 집념으로 무서워져요."라고 말했던 그 눈. 그 눈빛이 어렵게 보이는데도 했다.

엄홍길 대장은 시종일관 분주했다. 인터뷰 약속을 잡는 전화는 황급히 시간과 장소만 말하고 끊었다. 촬영 당일에도 지방에서 올라오자마자 곧바로 인터뷰 했고, 인터뷰를 마치고 바로 다른 약속 장소에 가야 한 다며 서둘렀다. 코로나19로 재단 운영이 어렵다고 했다. 기부금을 중단한 사람들도, 금액을 줄인 이들도 많다고 했다. 이럴수록 사람들을 많이 만나 인연을 맺고

교류를 해 재단을 홍보해야 한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더욱 조급해 보였다.

교육과 배움이 희망이다

엄홍길휴먼재단 설립 14년. 재단의 핵심 사업은 네팔 오지에 학교를 짓고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만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닌 운영까지 책임지다 보니 매달 고정 비용이 발생한다. 학교 건립 사업 외에도 국내 산악인 유가족을 지원하고, 등반 중에 사고로 죽은 네팔 현지 셰르파의 가족들도 도와준다.

"네팔은 가장이 죽고 나면 남아있는 아내가 생활전선에 나가 기본 생활비라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지 않아요. 셰르파 남편이 죽으면 그 가족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아이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도 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시설 보수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도 새로 채용해야 하고 매달 월급도 줘야 해요."



산과의 약속을 지키다

엄홍길 대장도 이제는 재단 업무의 비중을 줄이고 본인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럴 때면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산과 했던 약속을 떠올린다.

“히말라야 16좌를 오르내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가 있었겠습니까. 산은 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불구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 내 목숨을 쥐고 있는 상황,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그곳에서 산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했고 약속했습니다. 저를 이곳에 잡아두지 마시고 내려보내 주기만

국내에서는 사춘기 학생들이 산과 자연을 통해 자기를 극복하고 인내심을 기르도록 도움을 주는 ‘청소년 희망원정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8년째 ‘DMZ 평화통일대장정’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 대학생 100여 명을 선발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각까지 350km를 횡단하는 것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며 통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행사다. 가만히 그가 설명하는 재단의 일들을 듣다 보니 맥이 잡힌다. 교육이었다.

“네팔 오지, 자연 속에서 꿈도 희망도 없이 제대로 된 교육도 의료 혜택도 못 받아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부모님 이전부터 대대로 대물림되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운명인 듯 사는 것이죠. 가난의 고리를 끊고 인생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빈국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답은 배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교육에 힘쓰고 있는 이유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에게 다가오는 산의 의미는 달라졌다. 어릴 때는 그저 신나기만 한 놀이터였고, 한창 산을 오를 때는 두려운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것은 인생을 배우고 깨닫게 해준 공간이라는 것이다.



01 네팔 오지 학교 건립 프로젝트는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준공식을 할 때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눈망울을 보면 고단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린다.

02 엄홍길 대장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6좌를 완등했다.

03 엄홍길 대장에게 네팔은 제2의 조국이라 할 정도로 인연이 깊다.

04 그에게 산은 인생을 배우고 터득한 수행처이자 항상 그리운 어머니 품속 같은 곳이다.

한다면 나 혼자,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요.”

이 약속은 그 누구도 들은 사람이 없다. 산과 엄홍길 대장이 마음으로 주고받은 것이다. 하지만 산은 그를 무사히 내려보내 주었고 그는 내려와 약속을 지키는 중이다. 그것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열심히 지키고 있다. 하지만 몇 번이나 살려준 것에 비하면 자신이 하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히 손을 내젓는다. 그리고 산이 아닌 평지에서 인생 17좌에 도전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에게 다가오는 산의 의미는 달라졌다. 어릴 때는 그저 신나기만 한 놀이터였고, 한창

산을 오를 때는 두려운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것은 인생을 배우고 깨닫게 해준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 번도 인생의 방향을 미리 설정한 적이 없다. 그가 헤메일 때 산은 난지시 방향을 알려주고 깨달음을 주었다. 그 고마운 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엄홍길 대장은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것이다. 그가 지어준 학교에서 공부하는 네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그의 도움으로 사춘기를 잘 넘기고 세상으로 나아갈 우리의 아이들, 매서운 세상에 살아갈 큰 힘을 얻었을 대학생들과 산악인 유가족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직 겨울도 채 오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봄날이다. ☀

이토록 따뜻하고 무해한 공간

연간 대기로 배출되는 탄소 중 상당량은 시멘트와 철, 플라스틱 등을 생산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 건축재료로 쓰이고요, 역설적이게도 주거 공간을 짓는 동안 정작 우리는 살아가야 할 터전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산림청은 그 해답을 바로 숲에서 찾았습니다. 지구를 훼손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말이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간, 산림청의 목조 건축 이야기. 한 번 들어볼까요.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한국목조건축협회 제공



01 2021 대한민국목조 건축대전 준공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대구 서구청사 옥상 구내식당.

02 준공 부문 우수상 수상작 의류소담.

03,04 준공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은평9칸집 외부와 내부

현재 지구의 가장 심각한 실존적 위기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누적되면서 심각한 환경 위기를 초래해 재앙적인 생태계 재난에 직면해 있죠. 이러한 기후변화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위험에 직면해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환경 문제에 둔감합니다. 우리가 엄연히 환경 파괴의 주범인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기후변화가 다름 아닌 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문제임을,

나아가 기후문제로 발생하는 연쇄적인 문제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인류는 역사 이래 무언가를 끊임없이 더하고 늘리며 살아왔건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더하거나 늘리는 방식의 삶이 아닌, 빼고 줄이는 삶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줄여 유지해야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현재 지구의 온도는 100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1도나 상승했습니다. 인류가 개입하지 않던 시기에 자연스러운 온도 변화 속도에 비하면 무려 20배나 빠른 속도라고 하죠. 그리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분주히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영향은 기존의 어떠한 지정학적 위험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전기 자동차로서의 신속한 전환이나 석탄발전의 단계적인 감축, 그리고 무분별한 나무 벌목의 억제 등 그 방침도 다양합니다. 이제껏 그래왔듯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공동의 위기 앞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낼 겁니다. 물론 산림청도 예외는 아닙니다. 산림 강국으로써 산림청에서는 탄소 저장 능력이 탁월한 목재를 활용하여 탄소 중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유희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 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해 합당한 보상 마련에도 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발표한 탄소 중립 전략안 중 '30억 그루 나무 심기' 목표를,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 예방, 생태계보호 등과 같은 다양한 산림 가치를 반영하여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30억 그루 나무 심기'가 영급 구조의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강조하였다면, '산림순환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연계와 순환을 강조해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죠.

이러한 산림의 순환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균형입니다. 지속적인 조림으로 탄소 저감을 확대하는 동시에 목재의 자원적 가치를 이용한 목재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까닭에 산림청에서는 지속적인 조림과 더불어 국내 목재 이용 방안 마련에도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목조 건축은 바로 국내 장수명의 목재 이용을 촉진하는 산림청의 값진 노력 중 하나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하지만 나무로선 이산화탄소는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더구나 목재는 이산화탄소를 이루는 산소와 탄소 중 산소는 배출시키고 탄소만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소를 흡수한 나무를 건축재료로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레 탄소 저장과 역학을 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수 있게 되죠. 이를 '탄소 저장 효과'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30평의 목조 건축물을 지으면 대기 중 약 70가량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조 건축은 자재로서도 기후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밖에도 목재에서 나오는 정유 성분은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천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집먼지진드기의 활동에 억제에도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조습 작용도 뛰어나고, 단열 성능도 우수하죠. 부드럽고 따스한 심리적 안정감은 또 어떻고요. 이토록 무해하고 따뜻한 주거 공간이 있다니, 믿겨 지시나요. 더욱이 잇따른 고품질, 고성능 목재의 개발로 취약점으로 꼽혀왔던 목재의 단점도 상당수 개선되었습니다. 내화성능 시간을 늘리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공학 목재의 성능 개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 고부가가치 목재의 개발을 목표로, 산림청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있는 덕분이죠. 현재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목조 건축 사업으로는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 운영과 공공분야 목조 건축 우수사례 포상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1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를 개최해 건축·가구·문화를 비롯하여 목재 산업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이처럼 목재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를 넘어 주거 환경에 이르기까지, 산림청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도심이 숲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이죠. 숲





추운 겨울, 자연을 즐기는 방법

전국 목재문화체험장

자연에서 크는 아이들은 행복이나 분노, 두려움 등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아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난다. 추운 겨울이지만 나무의 향기를 맡고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전국 목재문화체험장 네 곳을 소개한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대전목재문화체험장

전국 최초로 대도시 중심에 조성된 목재문화체험장이다. 공룡 자동차와 기차, 자동차, 로봇 등의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성인은 초급·중급·전문반으로 나누어 수준별로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 📍 **위치** 대전 중구 보문산공원로 442(대사동 190-1)
- 🕒 **개장시간** 동절기 오전 9시~오후 5시 / 하절기 오전 9시~오후 6시
- ✖ **휴장**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 ☎ **전화** 목재체험 042-254-4565 / 나무상상놀이터 042-257-1233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장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소품 및 DIY 가구를 제작하는 은 행나무공방, 4~7세까지 어린이 대상 체험장인 느티나무공방에서 목공체험이 가능하다. 36개월부터 6세 아동을 위한 편백 볼풀장과 기차 놀이대 등이 있는 구름나무놀이터가 마련되어 있다.

- 📍 **위치**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238
- 🕒 **개장시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또는 3시 30분) *느티나무공방은 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운영
- ✖ **휴장**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 ☎ **전화** 032-440-5888



도계나무나라

나무의 형태와 쓰임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인 나무이용전시실과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모양의 피노키오를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는 피노키오 전시실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용도 정리함이나 독서대, 우체통, 도마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 📍 **위치** 강원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3-46
- 🕒 **개장시간** 오전 9시~ 오후 6시
- ✖ **휴장**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평일에 휴장)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 ☎ **전화** 목재체험 042-254-4565 / 나무상상놀이터 042-257-1233



구례 목재문화체험장

어린이들이 칠교놀이와 목재 악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목공체험장,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목공예 공방이 마련되어있다. 책 놀이터 컨셉트의 작은도서관은 작지만 알찬 공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책과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표방한다.

- 📍 **위치** 전남 구례군 간전면 간전중앙로 601
- 🕒 **개장시간** 오전 9시 30분~ 오후 5시
- ✖ **휴장**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 ☎ **전화** 061-780-2695

자연을 간직한 비밀정원

죽도 상화원

무언가를 채워 넣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우는 일이다. 속을 털어내지 않고는 무엇도 채워 넣을 수 없다. 때로는 삶도 마찬가지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이따금 삶의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한다. 호흡을 가다듬는 일처럼 기쁜 삶도 숨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럴 때 섬은 좋은 비움의 장소가 된다. 얼마남지 않은 한해, 삶의 숨 고르기를 하러 섬으로 떠나보았다.

글 매거진숲 편집실 사진 김병구



영상으로도 만나보세요



01 상화원은 죽도가 지닌 자연미를 그대로 보존하며 전통적인 한국식 정원을 조성했다.

02 상화원의 고택들은 시간이 빚어낸 듯한 단정한 맛이 있다.

서해의 끝, 죽도

서해 끝자락 어딘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별처럼 수놓인 섬 중에는 여전히 물이 빠지면 물에서 꼬막과 굴을 캐고 달구어진 벌에 생선을 말리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대여섯 곳의 횃집과 식당, 크고 작은 몇 척의 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일상과는 상관없이 곳곳마다 빼곡히 초록이 돋은 숲도 무성한 곳. 그 섬의 이름은 죽도다. 한 때는 '대섬'으로도 불렸다. 섬 전체에 울곧은 대나무가 울창해 붙여진 거였다. 본래는 반도와 떨어진 섬이었는데 남포 간척지 공사의 일로 방조제가 완공되며 육지와 이어졌다. 지금은 보령 팔경 중 하나로 꼽히며 관광 명소가 됐다.

아무리 육지와 이어졌다지만 섬은 섬이다. 섬 주위로 가득 들어찬 바다를 보고 있다면 익숙했던 환경으로부터 멀리 떠나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도심 속 문명과 잠시 작별한 채 자연 한복판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느껴진다. 잠시 가만히 선 채 숨을 들이켜본다. 호흡할 때마다 짠 기운이 코로 들어온다. 사람마다 사람의 살내가 존재하듯 바다도 물씬한 살내가 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수시로 바다 냄새를 싣고 오고 이곳이 내륙이 아닌 섬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마치 바다의 품에 안긴 기분이다.

서늘하고도 기분 좋게 비릿한 짠 내를 맡고 나면 그제야 섬 등허리에 돌아난 숲이 눈에 잡힌다. 큰 봉우리를

중심으로 곳곳의 언덕마다 녹음이 한 무더기로 들어차 있다. '대섬'으로 불렸던 사실이 마냥 거짓은 아니라는 듯 죽림도 한껏 우거져 있다. 멀리서부터 곧게 솟은 초록이 보인다면 그곳이 바로 대나무 숲이다. 아직 여름 티를 다 벗지 못한 이제 막 초가을의 문턱을 넘어선 숲은 대체로 얼룩덜룩하다. 가을에서 여름이 조금씩 새고 있는 것만 같다.

한국식 전통 정원, 상화원

죽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정원을 이루고 있다. 상업적인 개발은 최대한 배제한 채 기존의 숲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성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조금도 위화감이 없다. 자연은 자연스러울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니까. 그래서, 정원의 명칭도 다름 아닌 상화원(尙和園)이다. 문자 그대로 '조화를 숭상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죽도가 지닌 자연미를 그대로 보존하고 자연 본연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통적인 한국식 정원 조성을 위해 들인 시간만 무려 20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자연을 자연이게 하는 건 다름 아닌 시간이었다. 사람이 거드는 수고가 있듯 자연이 자라느라 필요한 노력도 분명 있을

테니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조차 모두 거대한 자연의 섭리에 맞물려 자라는 법이니까. 상화원 입구를 지나자 정자 하나가 다소곳이 관람객을 맞는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이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정자의 이름은 의곡당. 고려 후기에 건립된 경기도 화성 관아의 정자란다. 본래 관아에서 연회를 베푸는 장소로 쓰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와집 곁에 천막을 쳐 다방으로 변형해 사용했던 것인데, 2004년에 이르러서야 상화원으로 이건됐다. 가릴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썩 나쁜 지만은 없다. 오히려 기품있어 보이기까지 하다. 시간에 휩쓸려 바랜 느낌이 아니라 시간이 빚어낸 듯한 단정한 맛이 있다.

대체로 섬은 지형이 험하다지만 상화원은 다르다. 숲과 숲 사이를 잇는 둘레길인 '회랑' 덕이다. 회랑은 섬 둘레뿐 아니라, 상화원의 주요 시설을 잇는 이음매 역할을 한다. 죽도 외곽을 시작으로 상화원 내부 곳곳에 핏줄처럼 뻗어 있다. 더불어, 회랑의 시작점에는 단아한 한국화 몇 점이 가지런히 걸려 있어 운치를 더한다. 모두 수목을 이용한 화훼(花卉), 특히 매화에 능했던 취당(翠堂) 장운봉(張雲峰, 1910~1976) 화백의 작품





03

죽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정원을 이루고 있다. 상업적인 개발은 최대한 배제한 채 기존의 숲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성했다고 한다.

03 회랑을 따라 걷다 보면 우측으로는 서해가, 좌측으로는 섬에서 나고 자라는 숲이 보인다.

04 바다와 숲의 소리를 들으며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는 명상관이 있다.

05 섬 둘레와 상화원의 주요 시설을 잇는 회랑 덕에 상화원을 산책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

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등성등성 놓여 있어 주변 풍경도 해치지 않는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작품과 죽도의 경치가 번갈아 눈에 쏙인다. 죽도를 휘젓듯 이어진 회랑을 따라 걸어본다. 오른쪽과 왼쪽에 비치는 풍경이 사뭇 다르다. 우측으로 죽도 밀자락을 연거푸 더듬는 서해가, 좌측으론 섬에서 나고 자라 소란스럽게 번져가는 숲이 보인다. 귀퉁이한 도심의 흔적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문명에서 멀리 벗어난 고립감이 마냥 싫지만은 않다. 오히려, 애타게 바라왔던 풍경 같기도 하다. 바람이 죽도의 머리를 훑듯 가볍게 쓸어 넘는다. 그러자 숲이 일제히 솟았다가 우수수 스러진다. 그것은 바다도 마찬가지다. 제멋대로 불어오는 바람에 뒤척이느라 정신이 없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두 소리가 언뜻 닮은 것도 같다. 이곳에선 사람 말소리는 거센 자연의 기척에 파묻힌다. 충분히 허공을 떠다니다 금세 잡겨 가라앉는다.

일상이라는 위로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이다. 의미가 꼭 언어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듯 사람 마음도 비슷한 모양이다. 모쪼록 살아가면서 쌓인 작은 오해들이 있을 것이다. 미동조차 하지 않는 둔감해진 마음과 몸에 얹힌 피로도. 삶의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종종 마음을 비워내야 할 필요가 있다. 섬으로 온 까닭도 바로 그런 연유에서였다.



04



05

잠시나마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하루분의 휴식만으로도 남은 한 해 분의 몫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으니까. 실제로 회랑을 걷다 보니 근심이 차츰 열리는 기분이었다. 섬의 절반쯤을 지나올 적엔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다. 그간 늘어났던 고민도 별것 아니다 싶어지고 일상의 단조로움 역시 조금은 견딜만해 진다. 그렇게 도심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좁던지, 자연이 내뿜는 생명의 기척은 또 얼마나 숨가쁘고 싱그러운지 다시금 깨닫는다. 이곳, 죽도로 떠난 사실이 새삼 다행스럽게 다가온다. 이처럼 여행은 어느 장소로 떠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되고는 한다.

섬 외곽을 절반 즈음 지나오자 서서히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아무리 가을 초입이지만 가을은 가을인 모양인지 제법 해가 짧다. 섬 주위로 붉은 기운이 스멀스멀 일렁인다. 서해는 낙조가 장관이라던데, 바다 끝 섬에서 맞는 일몰은 과연 어떨지 마음이 들뜬다. 마침 이런 기대를 품은 관광객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걸까. 이곳 상화원에서는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원을 마련해두었다. 총 350m에 달하는 회랑으로 더욱 밀접하게 바다와 맞닿는 장소다. 아니나다를까. 낙조를 담으려 자리를 잡고 렌즈를 들여다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동조차 하지 않고 숨죽여 때를 기다린다. 조용하다 못해 숙연한 분위기다. 사람 말소리는 찾아들고 연거푸 부는 바람 소리만 선명하다.

자연의 속도에 맞추어 사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염없이 수평선만 바라본다. 해의 기울기에 따라 수면의 낮빛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 낙조가 질게 내려앉자 숲이 붉게 물든다. 제법 가을에 어울리는 얼굴을 갖춘 듯하다. 수없이 봐온 익숙한 일몰 장면임에도 낯선 이질감이 드는 건 왜일까. 멀리 떠나왔기 때문일까. 이렇게 하루는 또 하루분의 몫을 다하고 저문다. 조만간 긴 추위가 찾아오면 숲은 잎을 저물 것이고 수분을 몸 밖으로 뱉어내 말라갈 것이다. 그 사이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슬픔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겠지. 참으로 자연스럽다. 어느 때는 그 사실만이 유일한 위로가 된다. ☁



자연에 시간과 정성을 더하다

지영홍 도마 장인

예로부터 마을 어귀에는 마을을 지키는 정자나무가 있었다. 팽나무, 은행나무 등 여러 수종들 중 으뜸은 단연 느티나무였다. 나그네는 풍성한 녹음 아래 땀을 식히고, 훈장님은 아이들과 글공부를 했다. 사람들은 이 나무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며 당산제를 지내고 집안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나무 밑에서 두 손 모아 빌기도 했다. 지영홍 장인은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우리를 지켜주던 느티나무 고사목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 나무가 도와준 덕분일까. 느티나무 도마를 만들자 지영홍 장인에게 먼저 복이 찾아왔다.

글 매거진숲 편집실 사진 김하람

느티나무의 한결같은 매료되다

안동의 고즈넉한 기와집. 이곳은 지영홍 장인이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이다. 그는 이 집에서 나고 자랐다. 양반의 고장답게 자연스레 양반가와 명문가를 드나들 일이 많았다. 집집마다 다양한 가구들을 접할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찬찬히 살펴보니 느티나무로 만든 가구는 수 십년, 수 백년 전에 만들어진 것도 썩거나 틀어짐 없이 항상 아름다웠다. 이 좋은 느티나무로 무엇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을까 고민했다.

“느티나무로 만든 가구는 세월이 오래 지나도 변함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구는 워낙 만드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비싸 많은 사람들이 갖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마 없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만드는 것도

금방이고 가구에 비하면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때부터 도마를 연구했다. 사람들이 쓰는 도마를 보니 패이거나 곰팡이가 나고 썩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느티나무는 워낙 단단하고 질겨 패임도 없고 습기조차 머금지 않으니 곰팡이도 없었다. 자신의 도마를 설명하는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도마는 매일 물과 날카로운 칼이 닿으니 단단해야 합니다. 음식을 올리는 곳이니 독성도 없어야 하지요. 무른 나무는 안됩니다. 소나무는 다 썩어버립니다. 외국 나무는 썩지 않게 모두 방부제 약품 처리를 해 버려요. 그럼 그 부스러기는 모두 약품과 함께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느티나무 도마는 단단해서 평생 써도 패이지 않고 물을 머금지 않으니 곰팡이도 생기지 않습니다. 몇 년개를 팔았는데 지금껏 그런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01



02



03

자연의 재료에 정성만 더하다

느티나무를 동네 목공소에 가져가 잘라달라고 하면 톱날이 부러진다고 돌려보낸다. 그 정도로 목질이 워낙 단단해 기계로도 자르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느티나무 고사목은 통나무채로 4~5년을 말려야 한다. 그리고 도마 두께로 커듯이 잘라서 그 상태로 또 5년간 자연건조 시킨다. 지금 지영흥 장인의 집 마당 여기저기에도 느티나무가 켜켜이 쌓여 있다. 이 상태로 5년을 말린다는 것이다.

“다른 나무는 이렇게 몇 년을 두면 당연히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느티나무는 썩지 않고 그대로 수분만 날아갑니다. 목질이 워낙 단단해 말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자연에서 말려야 더 좋은 도마가 됩니다.”

그렇게 십여년을 기다린 후, 느티나무는 비로소 도마가 될 자격을 얻는다. 장인이 나무의 모양을 보고

알맞게 그림을 그리고 그대로 잘라낸 뒤 손수 사포질을 한다. 사람 입에 들어갈 음식을 올리는 도구라 들기름과 참기름만 발라 마무리한다. 그야말로 자연에서 자란 나무에 시간을 더하고 장인의 정성만 더하는 것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수십명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느티나무 고사목은 구하기도 어려워요. 거기다 십년을 건조해 만들어야 하니 당장 돈이 되지 않죠.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에게는 후계자가 없다. 외롭고 쓸쓸하지만 나무만 보고 묵묵히 외길을 걷는다.

느티나무, 복을 내리다

몇해전 텔레비전 시사프로그램에서 유해한 도마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방영된 적 있었다. 그때, 독성이 전혀 없고 인체에 무해한 건강한 도마의 좋은 예로

01 지영흥 장인은 한결같은 맛을 지닌 느티나무를 많은 사람과 나누고자 도마를 만들기 시작했다.

02 근 십여 년을 자연 건조시킨 느티나무만이 도마가 될 자격을 얻는다.

03 느티나무 도마가 각종 매체에 소개된 뒤 그는 돈도 많이 벌었다. 이는 모두 느티나무 덕이라 생각한다.

04 알맞게 재단한 나무를 잘라낸 뒤 손수 사포질을 한다. 그리고 들기름과 참기름만 발라 마무리한다

지영흥 장인의 도마가 소개되었다. 당시엔 사람들이 밤낮으로 셀 수 없이 밀려들어 매일 작은 동네가 사람들로 붐볐다. 조용하던 시골마을에 차가 너무 밀려 안동경찰서에서 나와 교통지도를 할 정도였다.

“자연적으로 붉은 빛을 띄는 나무는 몇가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느티나무 고사목은 잘 말렸을 때 붉은 빛이 납니다. 이를 홍목(紅木)이라 하는데 이런 나무를 들이면 집안에 안풀리던 일도 풀리고 경사가 난다고 했습니다. 나무 무늬가 불꽃 모양이 되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고, 용비늘 모양은 자손이 잘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도마를 만들고 난 뒤로 일도 잘 풀리고 자식도 잘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는 이 모든 것이 느티나무 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이 느티나무가 고맙다. 그리고 도마 만드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한다. 힘이 닿는데까지는 이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삼십년이면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시간이다. 그 시간동안 그 단단한 느티나무와 씨름하며 지칠 법도 할 터.

“몸 이곳 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전 지금도 이 느티나무가 좋고 이 일이 좋습니다. 지금껏 만든 도마중에 똑같은 도마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나무마다 문양과 색깔이 모두 다르고 도마 모양도 다르니까요. 수백년의 시간을 담고 있는 자연에 시간을 더하고 제 정성을 버무리는 이 일에 희열과 보람을 느낍니다.”

느티나무와 함께 한 이후로는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며 항상 나무에 고맙다는 지영흥 장인. 그의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에 느티나무도 감동해 복을 내려준 것은 아닐까. 이유야 무엇이든 그의 바람대로 그의 힘이 닿는 때까지, 그리고 자연과 나무가 허락하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도마 장인으로 남아있을 그의 모습을 그려본다. ☁



04



레고로 만드는 위트있는 일상

클리커

일상은 멈추는 법이 없다. 항상 물 흐르듯 끊임없이 흐른다. 그것이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고단함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무심하게 스쳐 가는 일상을 재치 있는 시선으로 표현하고 위로해주는 크리에이터 클리커와 만나보자.

글 매거진숏 편집실 사진 클리커 제공



YouTube
채널 바로가기



클리커 Clicker

전시 디자인을 전공하고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 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스톱모션 관련 전시를 본 뒤 어릴 적 꿈이었던 스톱모션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독학으로 스톱모션과 영상 편집 기술을 배워 영상을 제작하고, 기발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었다.



클리커의 영상을 보고 있노라면 클리커가 보인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클리커가 자연에서 받은 위로를 고스란히 전해 받는다.

독특함과 기발함이 살아있는 스톱모션 영상

반복되는 삶을 사는 주인공.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즉석조리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통조림을 열다 손을 다친다. 쌓여있는 공과금 청구서 사이에서 포레스토랑 초대장을 발견하곤 바로 길을 나선다. 그리고 도착한 포레스토랑에서 준비한 건강한 임산물 요리를 먹은 후 상처가 깨끗이 나아있는 것을 발견한다.

산림청과 클리커가 콜라보레이션 해 제작한 '지친 당신을 위한 임산물 코스요리'의 이야기다. 클리커는 레고를 비롯해 클레이, 펠트, 천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스톱모션 기법 촬영 영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유튜브버다. 산림청과의 영상에서도 실제 밤을 까면 노란 레고 알밤이 나오는데 속 껍질에도 조그만 노란 조각이 붙어있다. 회색 레고 새우를 볶다가 익으면 주황색으로 바뀌는 등 그 디테일이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구독자들은 그 기발함과 섬세함에 열광한다.

일상에서 얻은 소재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뤄

처음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낯을 놓고 보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면 저절로 유튜브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클리커는 대학교에서 전시 디자인을 전공하고 졸업 후 관련 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다. 회사에 다니던 중 일에 회의를 느껴 더 늦기 전에 예전부터 하고 싶던 영상 촬영을 하고자 회사를 그만두었다. “어릴 적부터 스톱모션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건 ‘아드만 애니메이션 전(展)’을 보고난 뒤였습니다. 스톱모션에 관련된 전시였는데, 제가 어릴 적 봐왔던 애니메이션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조명에 따라 분위기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사물에 어떤 움직임을 줄 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때 ‘나도 한번 나만의 스톱모션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클리커는 노력파다. 한 번도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은 스톱모션과 영상 편집을 모두 독학으로 공부했다.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레고도 촬영하면서 처음 조립해봤다. 뒤늦게 조립하며 픽셀아트 같기도 한 아지랑이 느낌에 매료되었고, 무엇이든 조립해 만들면 실물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점이 좋아 촬영에 자주 사용한다. 촬영부터 편집, 음향작업까지 모두 혼자 하지만 일정이 너무 많아 혼자 소화하기 힘들 때는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촬영을 하다 보면 몇 시간 동안 ‘찰칵찰칵’하는 소리만 듣게 된다. 클리커(Clicker)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착안했다. 또, 여기엔 ‘호객꾼’이라는 의미도 있어 ‘매력 있는 영상으로 사람을 끌어모으자!’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이름 지을 때의 의도대로 첫 영상은 올리자마자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했다. 처음 올렸던 ‘음악 시험을 망친 학생의 요리’라는 제목의 영상은 1년 여가 지난 현재 1,278만 회라는 어마어마한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고 100만 화는 기본, 200만, 400만 화를 넘는 영상도 많다.

“첫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조회 수가 높게 나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셔서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 욕심도 들었죠. 하지만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컸어요. 이걸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가야 할 고민이 겹치만요.”

주로 평범한 일상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그. 주변 상황이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며 영화에서 영감을 얻기도 한다.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정체성을 찾는 일

아직 한창 도시가 좋을 법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독특하다고 할 정도로 항상 자연이 있는

곳을 여행하고 등산하기를 좋아한다. 그 숲에서 마시는 공기와 풀 냄새, 새소리 등으로 자연의 위로를 받는다. 가족 모두가 밤이나 대추, 감,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좋아해 이번 산림청과의 협업이 더욱 즐거웠다는 그.

앞으로 유튜브 이외에도 다른 플랫폼에 차차 영상을 올리며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지금까지 혼자 작업해왔으나 앞으로는 팀원도 꾸리고 다양한 시도도 해가며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우선은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고 주제에 한계가 없는 영상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클리커 영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체성도 만들어야하려고 합니다.”

클리커의 영상을 보고 있노라면 클리커가 보인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클리커가 자연에서 받은 위로를 고스란히 전해 받는다. 그가 말한 그의 정체성은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

01 산림청과 콜라보레이션한 '지친 당신을 위한 임산물 코스요리' 갈무리.

02 클리커는 레고를 비롯해 클레이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스톱모션 기법 촬영 영상으로 사랑받는 유튜브버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건강한 임산물

고사리와 밤

고사리는 칼슘, 철, 인, 무기질, 단백질이 모두 풍부한 식재료로 성인병이나 고혈압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식이섬유가 많아 칼로리는 낮지만 포만감이 들어 다이어트 식재료로도 좋다. 철분과 엽산 또한 풍부해 빈혈을 개선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생으로 먹을 경우 독성이 있으므로 물에 12시간 이상 담가 두었다 데쳐 먹어야 한다.

출출한 겨울밤 간식으로 제격인 밤은 작지만, 영양가는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나 환자에게도 좋은 임산물이다. 밤을 고를 땐 색이 진하고 빛이 나며 알이 통통한 것이 좋다. 손으로 눌렀을 때 딱딱한 것이 싱싱한 밤이며 위 꼭지 부분에 하얀 분가루가 나 있는 것이 당도가 높다. 실온에 두면 금세 벌레가 생기므로 곧바로 비닐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한다. 껍질을 깠던 밤은 설탕물에 담갔다가 냉장 보관 하는 것이 좋다.

우리 몸에 좋은 임산물, 고사리와 밤으로 맛있는 겨울을 보내보자.

글 매거진숲 편집실 사진 스튜디오 KENN





영상으로도
만나보세요!

고사리 새우파스타

recipe

고사리 새우파스타 재료

파스타 150g, 왕새우 4마리, 고사리 100g, 마늘 3쪽, 소금 약간,
루콜라 약간, 올리브 오일 약간

- 1 파스타를 취향에 따라 7~8분 정도 삶는다.
- 2 올리브 오일을 두른 프라이팬에 편으로 썬 마늘을 볶아 향을 낸다.
- 3 마늘을 볶은 후라이팬에 그대로 새우를 굽는다.
- 4 프라이팬에서 새우를 꺼내고, 그 프라이팬에 고사리와 파스타를 볶아 접시에 낸다.
- 5 새우와 루콜라를 장식한다.

recipe

밤 몽블랑

밤 몽블랑 재료

밤 잼 100g, 휘핑크림 100g, 보닉밤 3개, 타르트 2개

- 1 비닐봉지에 밤 잼과 휘핑크림을 넣어 잘 섞는다.
- 2 비닐의 모퉁이를 5mm 정도 잘라 찰주머니를 만든다.
- 3 타르트에 휘핑크림을 올리고 가운데에 보닉밤을 넣는다.
- 4 밤이 보이지 않도록 휘핑크림을 덮는다.
- 5 그 위에 찰주머니의 밤 크림을 짜 올려 장식한다.



영상으로도
만나보세요!

자연을 그대로 담은 크리스마스

생목 트리 만들기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면 플라스틱 트리 폐기물로 지구는 몸살을 겪는다.
하지만 우리 숲과 환경을 사랑하는 <매거진 숲> 독자라면 올겨울엔 생목 트리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지구뿐 아니라 우리의 정서에도 이로운 생목 트리 만들기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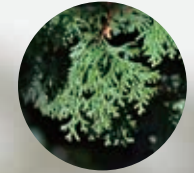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일 년 내내 두고 보는 즐거움 크리스마스트리에 사용되는 생목



키우기 쉽고 공기 정화 능력도 탁월한 아라우카리아

원뿔 형태의 소나무목의 공기정화 식물이다. 추위에 강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자라기 적합한 온도는 20~25도이며, 최소 10도 이상은 유지되어야 한다.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나무 끝이 누렇게 될 수 있어 직사광선보다는 음지나 반양지가 좋다. 키우기 수월하고 공기정화 능력도 탁월해 가정뿐 아니라 실내조경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며 나무 자체가 풍성하고 아름다워 전구 장식만 해도 크리스마스트리로 손색없다.



살균 작용 뛰어난 피톤치드의 대명사 편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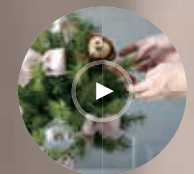
흔히 '히노끼'라고 불리는 나무로 세균 및 항균 작용이 뛰어난 나무다. 피톤치드를 내뿜는다 해 산림욕이나 아토피 치료에도 좋고 코르티솔 호르몬을 억제해 불면증과 스트레스 진정 효과가 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을 흡수해 새집증후군이 있는 곳에 두면 좋다. 물을 좋아해 대략 일주일에 한 번씩 충분히 물을 준다. 햇볕과 그늘 모두에서도 잘 자라 야외뿐 아니라 실내에서 키우기도 좋다.

생목 키우기가 부담스럽다면 플로럴폼에 나무를 꽂아 트리 장식하기



다채로운 재료가 어우러진 독특한 트리 ▶ Alwaysmay_flower 언제나오월

플로리스트가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편백잎 뿐 아니라 천일홍과 블루버드, 더글러스, 산동백, 목화, 솔방울 등 다양한 재료들을 믹스해 독특하고 재미있는 모양의 생화 트리를 완성한다.



더글러스와 리본, 인형을 이용한 세련된 트리 ▶ 플로리스트 전진영

전나무를 트리 형태로 꽂아 귀여운 나무를 만든 뒤, 톤 다운된 리본을 중간중간 묶어 만든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로 연출이 가능하며 만들기가 쉽고 간단해 누구나 따라 하기 쉽다.

나무를 닮는다는 것은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우리는 매일같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냐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망설여진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는 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난해한 그 질문 앞에서 누군가는 나무로부터 삶을 배웠노라고 말한다. 바로 우종영 나무 의사의 말이다. 삼십 년이란 세월 동안 나무를 돌보며 이제는 나무처럼 살고 싶기까지 하다고 고백하는 그에게서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매거진숲 편집실



저자 우종영
출판사 메이븐

사람이 사람과 함께 뒤섞여 사는 동안 그는 아픈 나무를 묵묵히 돌보며 살아왔다. 그렇게 말이 없는 나무의 몸짓을 수화처럼 읽어내면서 자연스럽게 나무로부터 삶의 태도를 배웠다.

나무는 살아가길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며 원치 않는 일을 불가피하게 겪어야만 할 때도 있고 그토록 바라왔던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다. 그렇기에 삶이란 살아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불가피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삶은 우리가 미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하다.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일조차 그렇다. 어떠한 생명도 자신의 의지로 세상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종영 나무 의사에게도 삶은 순탄치 않은 일이었다. 어려서부터 천문학자를 꿈꿔왔지만, 색약 판정을 받은 부득이하게 꿈을 포기해야만 했고 군 제대 이후 중동으로 건너가 벌어들인 밀천으로 시작한 원예 농사 역시도 근 3년 만에 폭삭 망하고 말았다. 가진 전부를 쏟아벌인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자 근심에 휩싸였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렇게 망연자살한 채 북한산을 정처 없이 오르내리길 몇 차례. 그만 삶을 놓아 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을 찰나, 그를 구원한 건 다름 아닌 나무였다. 산꼭대기 바위틈에 가까스로 뿌리를 내려 곳곳이 살아가던 소나무 말이다. 우종영 나무 의사는 그 소나무로부터 삶의 의연함을 얻었다. 한 평 남짓한 비좁은 공간에서 평생을 살아가야만 함에도 나무는 성실히 사는 일을 결코 멈추는 법이 없었다. 회의도 체념도 없이. 살아가는 일이 오직 생의 분명한 목적인 것처럼. 악조건에서도 힘겹게 뿌리를 내리고 계절의 주기에 따라 잎을 틔우고 지면서 애꽃은 숙명을 겸허히 받아들었다. 나무는 그저 살아냄으로써 삶을 위대한 것으로 만든 것과 다름없었다. 그것이 그가 평생을 돌보며 살아가게 될 나무와의 첫 인연이었다.

나무에게서 삶을 들여다보다

자그마치 삼십여 년이란 세월 동안 나무 의사로 활동해 오면서도 그는 여전히 나무로부터 배울 점이 많노라고 얘기한다. 양상한 몸으로 긴 겨울을 묵묵히 견뎌내는 초연함에서, 매해 계절마다 숙제처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한결같음에서 삶의 가치를 다시금 떠올린다. 나무를 돌보아온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저자가 나무를 통해 얻는 삶의 의미도 다양하다. 정나무가 떨어질 정도로 질긴 생명력을 갖는 아까시나무로부터 생의 의지를 엿보곤 마음이 숙연해진다거나 덩굴 식물인 등나무가 혼자 줄기를 뻗지 못해 두 줄기가 기대어 동아줄을 꼬듯 서로를 엮어가며 지라는 모습을 보고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식이다. 이외에도 우스운 생김새와 맛도 떨어 곧잘 실없는 과일로 취급받지만 진한 향을 한 번 맡으면 늘 곁에 두고 싶은 모과처럼 사람의 진심은 겉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 대나무가 단 한번의 꽃을 피운 즉시 생을 마감하듯 때로는 삶의 애달픔을 기꺼이 수긍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

우종영 나무 의사의 손을 거쳐 간 나무만 수천 그루에 달한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뒤섞여 사는 동안 그는 아픈 나무를 묵묵히 돌보며 살아왔다. 그렇게 말이 없는 나무의 몸짓을 수화처럼 읽어내면서 자연스럽게 나무로부터 삶의 태도를 배웠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생명체인 나무는 삶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온 유일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오늘도 바쁘게 살아가는 당신에게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가 꼭 필요한 이유다. 숲

내 손안의 작은 숲을 꿈꾸다

목재문화진흥회

돌이켜 보면 언제나 숲이었다. 삶에 물기가 말라갈 때 위로해준 것도 딱딱한 일상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도

모두 숲이었다. 부러 숲에 가지 않아도 숲을 떠올리면 왜인지 마음이 한결 나아지기도 한다.

분명 숲에는 사람을 더 잘 살도록 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힘의 가능성을 믿는 이들이 있다.

바로 목재문화진흥회의 이야기다. 숲과 사람을 잇는 사람들, 목재문화진흥회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목재문화진흥회 제공



숲이 일상에 스미도록

요즘 숲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주말이면 인근 숲이나 식물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꼭 숲에 가지 않더라도 괜찮다. 실내에 반려 식물 하나쯤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펍퍽한 일상이 다시금 활기를 찾기도 하니까. 이처럼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와중, 우리를 다독여준 건 다른 아닌 숲이었다. 고개만 가져가면 곧잘 보이는 숲. 익숙한 탓에 늘 곁에 존재해왔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을 만큼 흔한 숲 말이다.

바쁜 일상에 짓눌려 분주히 살아갈 때 우리는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우친다. 숲도 마찬가지였다. 그 작은 일상조차 무너져 삶이 위태로울 때 우리는 도리어 숲을 찾았다. 마치 향수에 젖은 사람처럼 숲은 늘 대가없이 내어주고 기운을 돌려주었다. 숲은 그런 존재였다. 오랜 시간 인류의 삶을 거들여온 존재였다. 숲은 늘 우리를 더 잘 살도록 만들었다.

목재문화진흥회는 그런 숲의 가능성을 믿는다. 그래서 숲이 일상에 깊이 스며들길 바란다. 공간적 제약을 넘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말이다. 그간 목재문화진흥회에서 다양한 목재 활용 방안

마련에 부단히 힘써왔던 건 그 때문이었다. 목재 문화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문화를 주도하고 나아가 생활 양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 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요즘 목재는 그 대응책으로써 주목받고 있기까지 하다. 이제 산림 보전과 목재 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하나의 문화 정체성이자 생활 양식, 시대적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모두가 편히 누릴 수 있도록

목재 산업이 하나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편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내 손안의 숲'이라는 철학에 맞게 다양한 활용으로 목재 이용을 촉진하거나, 목재 산업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등, 목재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건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생애주기별 목재 콘텐츠 발굴이나 신규 목재 상품 개발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맞춤 콘텐츠를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목재를 주제로 한 캠페인 및 행사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서왔다. 더불어 목재정보콜센터

01 목재문화진흥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목재를 활용한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쓴다.

02 목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03 목재문화진흥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이 편백 블록으로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01



02



03

목재문화진흥회는 그런 숲의 가능성을 믿는다. 그래서 숲이 일상에 깊이 스며들길 바란다. 공간적 제약을 넘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말이다.

(143341)를 운영해 언제든지 쉽고 편히 목재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도 하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다. 목재의 전반적인 활동을 모두가 편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만큼 목재 교육센터와 목공창작센터를 운영하는 등 각종 창작 활동이나 교육, 워크숍을 통한 디자이너와 목공 전문가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 목재 문화가 활발히 활성화되려면 단순한 소비자의 역할을 넘어 누구든지 목재를 활용하여 직접 창작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창작과 소비가 서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만 더욱 건강한 목재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재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다

목재로 사회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루가 쌓여 삶을 이루듯 작은 변화만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목재문화진흥회에서는 숲이 삶이 되도록 목재 문화가 일상이 되도록 꿈꾸며 세상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사회적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 가정을 위하여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 친환경 목조 방을 짓는가 하면, 발달장애 인훈련센터 내에 목재 체험관을 꾸려 체계적인 직업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맞은 지금, 목재문화진흥회는 그 중심에서 탄소 중립시대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주기적으로 친환경 발채를 해주어야만 건전한 산림 생태계가 유지되기에 지속적인 목재 사용 역시 산림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생산과 소비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만 친환경 순환 구조가만 들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이 목재문화진흥회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과 협업으로 목재 사용 촉진에 앞장서는 이유다.

숲은 늘 제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는 숲에 기대어 삶을 일구어왔다. 하지만 우리는 그간 숲을 너무 소홀히 대해왔는지도 모른다. 좋은 관계는 서로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되듯, 숲과 인류의 공존을 위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할 때이다. 그렇기에 숲과 사람을 잇는 목재문화진흥회의 노력은 우리에게 더욱 소중히 와닿는다. ♣

산림청 소식



‘가져와서 고마워, 가져가서 고마워!’

산림청은 코로나19 이후 젊은 산행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2021 올바른 산행문화 개선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했다. 캠페인 참여자 중 총 3,000명에게 제공되는 친환경 산행 키트(KIT)는 친환경 파우치와 방석, 생분해 쓰레기봉투, 생수, 장갑 등 총 6종이 포함되며, 키트 구성품 중 파우치와 방석은 국내 페페트(PET) 병을 활용해 제작되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가를 환영하며,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스케이그룹, 탄소중립·이에스지 경영 협력 업무협약

산림청은 10월 13일 에스케이그룹과 ‘탄소중립 활동과 이에스지(ESG) 경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탄소중립과 이에스지(ESG) 경영은 전 세계적인 관심 분야로, 협약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이에스지(ESG) 경영에 산림청과 에스케이그룹이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함께 키운 숲, 우리를 보듬다! 제20회 산의 날 기념식 개최

산림청은 10월 18일 ‘제20회 산의 날’을 맞아 대전목재문화체험장에서 ‘함께 키운 숲, 우리를 보듬다’라는 주제로 산림 유공자와 임업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기념식을 열었다. ‘산의 날’은 국제연합(UN)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산림청-전라남도-완도군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은 전라남도, 완도군과 22일 전라남도청에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산림청 최병암 청장과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완도군 신우철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한반도 아열대화 기후변화 대응과 난·아열대 산림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Vol. 44

민관협의회 논의에 따라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산림분야탄소중립 전략(안) 논의를 위해 7월 초 구성된 산림 부문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강영진)은 그간의 논의 경과와 주요 성과를 10월 27일(수) 발표하였다. 올해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해 산림청은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백담사에 ‘만해의 단풍나무 숲’ 조성추진!

산림청은 10월 27일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에서 「만해의 단풍나무 숲」 조성 추진 기념식 수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검소했던 한용운 선생의 삶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간소하게 개최되었으며, 최병암 산림청장, 백담사 주지 스님 등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 했다. 산림청과 인제군은 ‘님의 침묵’에 등장하는 단풍나무 숲과 숲길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백담사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총력

산림청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공고한 데 이어 29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을철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앞으로 산불방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능형 산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일사불란한 협업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진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산림 자원 서약’에서 산림복원 모형은 한국!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2일(현지 시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의 ‘글로벌 산림 자원 서약’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한국이 영국·미국·독일·노르웨이·프랑스 등 12개 선진국과 함께 2021~2025년간 약 120억 달러 규모의 열대림 복원 자원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지지 연설과 함께 산림 부문의 공동행동을 이행해나가야 함을 국제사회에 촉구하였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홍보

산림청은 11월 3일 오후(현지 시간), 영국 글래스고에 조성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0.31~11.12) 한국 홍보관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홍보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산림 분야 최대규모 국제행사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관계자들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산림청 <Magazine 숲>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Magazine 숲> 읽고 난 후 인상 깊었던 기사에 독자 엽서, 이메일(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 호 여섯 분의 독자 의견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2021 9+10월 호 독자 의견



이기철(부산 사당구)

다음 세대가 꿈꾸는 숲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김정하 김인하 자매의 기사가 감명 깊었습니다. 그들의 숲 사랑과 앞날을 준비하는 씩씩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내년에 산림총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산림청에서 어떤 준비를 하든지 궁금합니다.



장인선(강원도 춘천시)

읽을수록 자연을 사랑하게 되는 <매거진 숲>이 좋습니다. 이번 호는 깎아지른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자연의 속살을 비춘 주왕산의 이야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요즘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가슴이 탁 트이는 곳을 가고 싶었는데 마침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셨네요.



김혜선(부산 사하구)

항상 <매거진 숲>을 읽으며 많은 것을 주는 숲의 가치에 대해 하나씩 알아갈 수 있어 좋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은데 '숲에 깃든 이야기'에서 소개해주시는 책들은 모두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희(경기도 의정부시)

'숲으로 출근하는 기분 좋은 상상, 해본 적 있나요?'라는 숲 프롤로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있지요! 제 일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내용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유아 숲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쾌한 숲으로 출근하는 제 미래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문회(경남 김해시)

<매거진 숲>은 생활의 활력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책입니다. 시간과 바람이 일궈낸 주왕산을 읽으며 내 자신이 주왕산 계곡에 있는 착각을 일으키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책을 보고 창원 편백 숲에 다녀왔는데 너무 행복했고 숲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최성열(충북 청주시)

<매거진 숲>을 보며 숲이 이렇게나 많은 이로움을 주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고 있으면 숲속에 살고 싶어집니다. 이번 호에서 '숲이 되기까지의 시간, 그루작'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루작의 체험 행사를 알게 되었고 꼭 가보고 싶습니다.

K-FOREST FOOD

국가대표 청정임산물을 소개합니다!

향긋한 '곤드레'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고유종, 바람이 불면
줄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술에 취한 사람과 비슷하다고 하여
곤드레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설이 있음

곤드레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예로부터 구황식물로 쓰이고
있음

칼슘, 인,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빈혈을 예방,
베타카로틴 성분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 예방에 도움을 줌

제철 5월~6월

건곤드레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녹갈색을
띠고 있는 것이 좋음

곤드레의 추출물이
간 독성을
중화시키고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

영양정보/ 1회제공량(5g)

| | | | | | |
|----|--------|------|------|-----|--------|
| 열량 | 15Kcal | 탄수화물 | 3g | 단백질 | 1g |
| 지방 | 0g | 칼륨 | 55mg | 칼슘 | 0.86mg |

K-농업 산림청